광주아파트 시가총액 42조 2015억원

6개월새 1조 8천억 늘어…전남도 152억↑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작년 말 대비 5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의 재건축 등 잇단 규제완화와 전세난, 초저금리 정책으로 주택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시가총액도 늘었다.

24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 아파트 706만6644가구의 시가총액은 약 2071조5483억원으로 작년 말 2022조3352억여원에 대비, 49조2131억원(2.43%)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6월 현재 아파트 매매가격 시가총액은 42조2015억원으로 지난해 말 40조3844억원보다 1조8171억원 늘었다. 전남은 지난달 기준 12조4478억원으로, 지난해 말 12조4326억에 비해 152억원이 오른데 그쳤다.

전국적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시로 작년 말 대비 15조8052억원가량 증가한 695조40307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가 599조6366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조6166억원이 늘었다. 그 다음은 대구시(109조8451억원)로 작년 말 대비 7조1363억원 증가했다.

시가총액 상승률로는 대구시가 6.95%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대구에 이어 부산이 137조2096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3조6027억원 늘었고 인천시가 118조6888억원으로 2조7906억원 증가했다. 광주시는 4위를 기록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상반기 아파트 시가총액은 전세난에 의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준금리 1% 시대의 초저금리 대출 등이 복합 호재로 작용하며 증가세를 보였다"며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광주, 대구·부산 등 청약 과열지역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제 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학기 종강식 및 원우의 밤' 행사에서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원우인 윤장현 광주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명품 강의·원우 열정 어우러진 고품격 아카데미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3기 1학기 종강식 및 원우의 밤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학기 종강식 및 원우의 밤 행사가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여송 사장을 비롯한 광주일보 임직원과 윤장현 광주시장, 이학재 제 3기원우회장((주)아로마 라이프 대표) 등 리더스아카데미 원우 90여명이 참석했다.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은 "전국적인 명성이 있는 강사진의 알찬 강의와 제 3기 원우들의 열정이 합쳐져 성공적인 1학기를 보냈다"며 회고하고 "1차 세미나와 태국 연수 등 원우회 행사에 적극 참여해준 모든 원우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학재 원우회장은 "지난 1학기 강의 일정을 통해 원우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며 "제 3기 원우 들이 모두가 한 뜻으로 뭉쳐 광주일보 리더스의 모범 기수가 되자" 고 말했다.

1부 종강식에 이어진 2부 원우의 밤 행사에서는 초청 가수의 공연 관람과 조별 장기자랑으로 원우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 3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2달 동안의 재충전 시간을 갖고 오는 9월 2일부터 2학기 강의 일정을 갖는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삼성서울병원 무기한 부분폐쇄

메르스 확진자 발현시기·노출정도 다시 평가

메르스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가 종료 기한없이 계속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4일 이날까지로 예정됐던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 기간을 종료시점을 정하지 않고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덕철 대책본부 총괄반장은 "민간과 정부의 전문가로 구성된 삼성서울병원 즉각대응팀(팀장 송영구 연세대의대 교수)이 이날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병원 측이 이 결정을 수용했다"며 "부분폐쇄를 언제까지 연장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발현시기, 확진 시기, 노출 정도 등을 토대로 위험도를 다시 평가해 언제까지 부분폐쇄를 할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3일 밤 이 병원의 외래 및 입원, 응급실 진료를 전면 제한하고 수술 역시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하는 내용의 부분폐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슈퍼전파자(super spreader)인 14번 환자를 통한 감염 환자가 급증한데다 이 병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55)가 증상 발현 후 이 병원에서 9일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방역당국 등은 이에 따라 137번 환자에 의한 메르스 바이러스 전파 최장잠복기인 24일까지 병원을 부분폐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메르스 확산세가 비교적 진정된 최근 들어서도 추가 환자 발생이 끊이지 않자 부분폐쇄 기간을 더 늦추기로 최종 결정했다. 병원 측은 부분폐쇄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23일 예약된 진료 날짜가 임박한 일부 환자들에게 예약 시점을 다음주 2번째 주 이후로 미뤄서 다시 잡자는 전화 연락을 하기도 했다.

확진일 기준으로 이 병원에서 감염된 메르스 환자는 12일 7명, 13일 4명, 14일 1명, 15일 3명, 16일 5명, 17일 1명, 18일 1명, 20일 1명, 21일 1명, 22일 1명, 23일 1명 등으로, 19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환자가 나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8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가 전날보다 4명 증가해 179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옛 전남교육청 청사 해제 신청 반려

광주시 "기부채납 계획 미제출·매각 이유 설명해야"

광주시가 최근 전남도교육청이 매각한 옛 전남도교육청사에 대한 공공청사 해제 신청을 반려했다. 재산상 이득이 예상되는 만큼 공공성을 확보해 오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24일 "전남교육감이 제출한 옛 전남교육청사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해제 신청서에 기부채납의 규모와 계획 등이 없어 해제 절차를 보류하고 신청서를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국토부 훈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를 해제할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의 일정 부분을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하도록 해야 하나 전남교육청이 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또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013년 광주시교육청과 해당 부지에 광주 모 고교 이전 여부를 협의하던 중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청사를 해제하면 재산상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익분에 대한 기부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향후 공공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북구 매곡동에 위치한 옛 전남교육청사는 1980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결정됐으며, 결정면적은 진입도로를 포함해 4만5891㎡으로 지난달 (주)삼라건설측에 매각(352억원)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노건평씨 검찰 출두

'成 특별사면 청탁' 조사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4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특별사면 관련 청탁을 받은 인물로 지목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건평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가 청사에 출석하는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건평씨는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연말 특사를 앞두고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남기업 임원이던 김모씨가 성 전 회장의 부탁을 전달하기 위해 건평씨의 자택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 지역 출신인 건평씨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은 인물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건평씨는 최근 몇몇 언론과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 측 사람이 접근해 왔지만 (특사 부탁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건평씨를 상대로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김씨와 접촉한 이후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 업무 담당자들에게 청탁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연합뉴스

포니·우장춘 배추·나로호…

미래부, 국민생활 바꿔놓은 과학기술 성과 70가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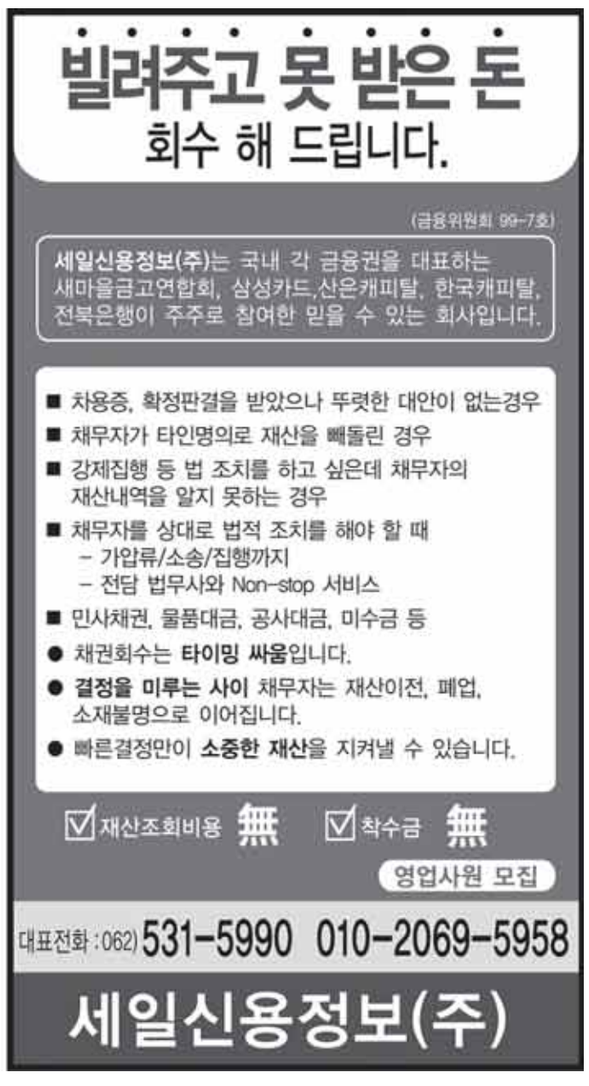
광복 이후 7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생활을 가장 크게 바꿔놓은 과학기술은 무엇일까?

미래창조과학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광복 이후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끌어온 과학기술 분야의 대표 성과 70선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70선에는 우장춘 박사가 잡종 교배로 만든 배추 품종과 국내 첫 독자 모델 자동차인 포니(현대자동차), 한탄바이러스 백신, D램 메모리 반도체 등이 들어갔다.

대표 성과 70선을 시대별로 보면, 광복 직후인 40~50년대의 성과로는 현신규 박사의 '산림녹화 임목육종' 기술, 한글 기계화의 효시로 불리는 공병우 박사의 '기계식 한글 타자기'(일명 공병우 타자기), 수학자 이임학의 '리군 이론' 등 5건이 뽑혔다. 이 시기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성과보다는 기관·개인 차원의 연구 성과가 두드러졌다.

60년대에는 과학기술 전담부처가 설립되고 정부 주도로 농업 및 초기 공업화 진흥정책이 추진됐다.

이때의 성과로는 채소 종자의 자급 기반을 마련한 우장춘 박사의 일대(一代) 잡종 배추 품종, 화학장치산업

70년대는 '조국 근대화'를 내건 경제개발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조선·토목건설 등 중화학공업 육성에 시동을 건 시기였다. 국내 최초의 고유모델 국산차인 포니, 경부고속도로, 초대형 유조선, 통일벼 기술 등 9건이 이 시기의 주요 성과로 뽑혔다. 2000~2010년대에는 인간형 휴머노이드(휴보), 초음속 고등훈련기(T-50), 글로벌 신약 '팩티브', 국내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등이 선정됐다. /연합뉴스